

# PEOPLE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 영암신협, 2000억 달성 기념식

영암신협은 최근 본점에서 자산 2000억원 달성 기념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박영실 영암신협 이사장, 김영하 신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영암신협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연속 신협중앙회 경영종합평가상을 수상하며 건전한 재정을 입증했다. 특히 2021년에는 대상, 지난해에는 최우수상을 수상해 조합의 지력을 보여줬다.

영암신협은 지역사회 기여에도 앞장서고 있다. 영암군과 협약을 맺고 취약계층을 위한 3무 전사편드를 운영. 1인 최대 500만원 한도로 총 25명에게 대출을 지원해 생계 위기 가정을 돕고 있다.

박영실 영암신협 이사장은 "50여 년간 영암신협과 함께해준 조합원과 지역사회 덕분에 자산 2000억원 달성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신뢰에 보답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송홍 기자 photo25@



## 광주여성라이온스클럽 사랑의 식당 후원·배식봉사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광주여성라이온스클럽은 최근 사회복지법인 분도외안나 개미꽃동산 사랑의식당을 찾아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한 뒤 배식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봉사에는 최광라 회장과 박명화·여오진·이미영 역대회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최광라 회장은 "지난 1991년부터 저소득 어르신과 노숙인, 장애인 등에게 무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등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개미꽃동산 박중수 이사장을 비롯한 봉사자들에게 존경을 표한다"며 "우리 라이온들도 지속적인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제32대 총재를 역임한 박중수 개미꽃동산 이사장은 "지역에서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보살피겠다"고 밝혔다. 정현이 기자 aura@gwangnam.co.kr



## 포스코 비온드 봉사단 독거노인에 다용도 배상 전달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대학생 봉사단 '비온드'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제작한 원목 배상 40개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2007년부터 18년째 대학생 봉사단 '비온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급호동 부덕사에서 진행됐으며, 박종일 행정부소장과 제철소 재능봉사단, 비온드 18기 단원 등 120여명이 참여했다.

비온드 단원들은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배상 제작인 만큼 시포질, 색칠, 패턴 입히기, 마감재 처리까지 정성을 다해 완성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밝은 미래와 꿈 응원”

### 전남도-목포청소소년수련원, 다양한 직업체험 제공 '꿈을 찾아가는 드림 런닝맨' 주제 진로 캠프 성료

전남도와 목포시청소소년수련원은 최근 '2025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진로캠프'를 진행.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해 이들의 꿈을 응원했다.

캠프에 참가한 30여명의 청소년은 목포, 여수 등 전남 일원에서 '꿈을 찾아가는 드림 런닝맨 (Dream Running Man)'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꿈을 함께 찾아가며 잊지 못할 여름의 추억을 만들었다.

이들은 캠프를 통해 단순한 직업 선택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진로 탐색 기회를 넓히는 시간을 보냈다.

캠프는 △현대상호중공업 등 기관과 산업체 견학 △브이로그 제작 교육과 체험과 같은 인기 있는 직업 분야 직·간접 체험 △다문화 요리 체험 '우리가 만든 지구촌 밥상' △전남 주요 관광지 견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자기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또래들과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뤄졌다.

캠프에 참가한 한 청소년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이번 캠프



전남도와 목포시청소소년수련원은 최근 '2025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진로캠프'를 진행했다.

가 청소년이 지역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하이лай트 영상으로 구성해 오는 9월 전남도 밀거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문화박람회에서도 상영할 예정이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이 제작한 브이로그는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도정간담회



김영록 지사가 지난 22일 도청에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임원진들과 도정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남도, 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아동복지 발전 모색

### 도정 간담회에서 아이들의 행복·미래 정책 방향 논의

전남도는 지난 22일 도청에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함께 도정 간담회를 열어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아동복지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남세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 전남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선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아동복지를 위한 정책적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남도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환경개선비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

를 도입해 처우개선에 앞장서는 등 현장 목소리에 기반한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세도 이사장은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현장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아동복지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아동센터는 단순한 돌봄의 공간을 넘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또 하나의 배움터이자 삶의 터전"이라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아동복지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2025년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 정책 공모전 최우수작으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판 제작', '도로반사경 시인성 향상 방안' 등 생활밀착형 우수 정책 13건을 선정해 시상했다.

## 전남자치경찰위, 생활밀착형 우수 정책 13건 선정

###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판 제작·도로반사경 시인성 향상 방안 등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2025년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 정책 공모전 최우수작으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판 제작', '도로반사경 시인성 향상 방안' 등 생활밀착형 우수 정책 13건을 선정, 지난 22일 시상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치안 정책 공모전은 2021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 매년 개최해 올해 5회째를 맞았다.

주민의 지역 안전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고, 제시된 제안을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8주간의 공모를 진행. △생활안전 △청소년·장애인·여성 등 사회취약자 보호 △교통안전 △다중중점 안전관리 4개 분야 총 125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실무부서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

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도민 분야 최우수작으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판 제작', 공무원 분야 최우수작으로 '도로반사경 시인성 향상 방안' 등 총 13건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했다.

특히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제안부터 관련 부서 검토와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보완,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할 방침이다.

정순관 전남자치경찰위원장은 "지역 안전에 관심을 갖고, 현장 목소리를 담은 의견을 제시해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창구를 넓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자치치안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광주응급환자이송단, '안전 가드' 시민 호평

### 싸이 콘서트서 30명 의료지원인력 투입 건강·안전 지켜

광주응급환자이송단이 초대형 공연 현장에서 다시 한번 '시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지난 23일 광주 조선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싸이 흥백쇼' 현장에서 민간구급차 4대와 전문의료지원 인력 30명을 배치해 관람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킨 것이다.

이번 공연은 한여름 무더위 속에 수천 명의 관람객이 몰리며 탈진·어지럼증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실제로 공연 도중 탈수 증세와 두통, 체력 고갈을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했으나, 이송단의 료진이 즉각 현장 조치에 나서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의료진은 간이 의무실과 공연장 곳곳에 비상 대응 기구를 운영하며 100여명의 경중 환자를 돌보는 한편, 중증 우려 환자는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해 안전사고 확산을 차단했다.

조승록 광주응급환자이송단 법무이사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형 공연일수록 돌발상황에 대비한 체계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모든 인력이 각자 매뉴얼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덕분에 큰 사고 없이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광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응급환자이송단은 응급구조사·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지역 응급이송 전문기관이다.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은 구급차를 운용하며,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이송 서비스를 물론 지역 내 대규모 행사, 체육대회, 공연 현장에 빠짐없이 참여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도 광주월드



김경기장에서 열린 싸이 콘서트에서 탈진 환자를 신속히 이송해 주목받았으며, 지난해 5월에는 조선대 호남권역재활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전문 강화와 협력 네트워크 확대에 나섰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지원 활동을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 안전을 든든히 지켜주는 존재"라는 호평이 잇따랐다.

여름철 폭염과 장시간 이어지는 대형 공연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만큼, 응급환자이송단의 활동이 사실상 '안전 버팀목'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광주응급환자이송단은 앞으로도 광주·전남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에 상시 투입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의 파수꾼'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대학교 동물병원이 지난 18일 '줄기세포 치료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 전남대동물병원, 줄기세포 치료센터 개소

### 노령·난치성 질환 반려동물에 새 희망

전남대학교 동물병원(병원장 이봉주 교수)이 지난 18일 '줄기세포 치료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센터 개소는 호남 지역 동물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만성·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반려동물들에게 최첨단 치료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줄기세포 치료센터는 줄기세포를 전공한 손영범 수의신과학 교수가 센터장을 맡아 모든 치료 과정을 총괄하며, 반려동물 개체의 특성을 고려한 정밀 맞춤 시술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한다.

손영범 센터장은 "줄기세포 치료는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혁신적인 치료

법"이라며 "기존 수술이나 약물 치료 개선이 어려웠던 관절, 피부, 신경계 등 다양한 난치성·퇴행성 질환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줄기세포의 엄격한 검증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는다. 치료에 사용되는 모든 줄기세포는 지속적인 관찰과 엄격한 검증 체계를 거치며, 오직 건강하고 안전한 세포만이 임상에 활용된다. 센터는 임상 사례를 통해 관절염 동물의 보행 개선, 아토피 피부염 증상 호전, 탈모 동물의 털 재생, 척추 손상 동물의 보행 회복 등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

이봉주 전남대 동물병원장은 "줄기세포 치료센터 개소는 새로운 치료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의 반려동물들에게 건강한 삶을 되찾아주는 희망의 시작"이라며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joinus@